전방위 현안 접근… 추진계획 '기대감'

키워드로 보는 조계종 종책과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출범 이후 첫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종단 운영기조와 핵심과제들을 발표했다. 다양한 세부과제를 △중앙권한 분배 △대정부 정책 △문화유산 보존 △불교교류 강화 △거점시설 건립 등 5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중앙권한 분배

첫 번째는 교구본사 역할과 비구니 위상 강화를 통한 중앙권한 분배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해 선거 당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교구에 이양하고, 법적으로 비구에 비해 제한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구니들의 역할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조계종은 올해 교구 목적사업 추진 재정 확보를 위한 '교구 특별분담 사찰' 제도를 마련하고, 교구 행정력 강화를 돕고자 중앙종무기관 내 '교구 행정지원 TFT'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승려복지재원 마련과 대형불사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각 교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구니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 위한 종법 정비, 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비구니 교역직 확대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전국비구니회도 전체 비구니들의 의견 취합을 진행 중이어서 결과 도출이 늦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 정책

두 번째 키워드는 불교계 현안으로 떠오른 대정부 정책이다. 앞서 정부는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불교계와 상의 없이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에 조계종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법령 제 · 개정 등 제도 개선, 전통사찰 건물 중 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물에 대한 등재와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우선적으로 제 · 개정이 필요한 불교 관련 법령을 정리한 뒤 정책안을 마련하는 한편, 무허가 및 미등재 등으로 인한 사찰 건축물 현황과 유형 파악에 나선다.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한 위헌성을 검토하고, 사유지 소유자들과 공동대응 방안 모색한다. 특히 문화재구역입장료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내방객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문화유산 보존

세 번째는 문화유산 보존이다. 조계종은 지난해 7개 전통사찰을 포함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은 산지승원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오는 7월까지 '산사세계유산 보존관리단(가칭)'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 · 무형유산과 일상의례 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보존전승 지표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개 사찰별 테마를 적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나설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불교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해서는 연등회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면서 불교전통인 '발우공양'의 전국 설행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한 49재와 예수재 등 천도재 의식 보존계획을 수립해 무형유산 전승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교교류 강화

네 번째는 남북 · 세계불교 교류 강화다. 조계종은 불교계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남북 합동행사뿐만 아니라 북한 사찰 산림 조성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정치적 색채가 없는 종교교류에서 불교계가 가장 먼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불교계와 공동 사업 △파키스탄 문화교류 △주한 외국공관 직원 초청 행사 △외국인 사찰안내시스템 시범사업 등을 계획했다. 여기에는 외국인용 경전 번역 안내문 개선과 소수언어 통번역 기능자 확보 등이 포함된다.

거점시설 건립

끝으로는 그동안 계획단계에 머물렀던 거점시설 건립이다. 10.27법난기념관과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대표적이다. 조계종은 현재 총본산성역화불사와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을 분리해 기념관의 대체부지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대체부지로는 봉은사 토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는 사업 본격화에 매진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와 세종시 체험관은 빠른 시일 내 착공단계에 들어가 거점시설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계종, 현안 논의할 '지도자 포럼' 연다

조계종이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과제 설정을 위한 '종단 지도자 포럼'을 연다.

제1차 지도자 포럼은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서 총무원장과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을 비롯해 각급 부실장,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200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린다.

포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전문가 강연과 질의응답, 종합토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연은 △AI발전 현황과 종교의 문제(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승가복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국립공원제도 문제점과 전통사찰보존지(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교수)를 주제로 진행된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포럼은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 1번지' 조계사,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1월 4일 종로구청과 마을자치센터 운영 협약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불교계 사상 최초로 마을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조계사는 1월 4일 종로구청과 종로구마을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협약을 체결했다. 마을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개발하는 곳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직영하던 마을자치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시작했으며 공개입찰을 통해 조계사를 선정했다.

종로구에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이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평창동과 혜화동, 창신3동으로 조계사는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조계사는 올해 직접사업보다는 각 동 마을단체 및 신규 주민조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으며, 마을 사업으로는 주민조직 씨앗 단계로 첫째 이웃 만들기 사업과 골목 만들기 사업을 공모한다. 이를 통해 동별 사업컨설팅과 모니터링, 성과공유회, 마을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사진 오른쪽)이 종로구청과 운영 협약을 맺는 모습.

이와 아울러 향후 시범기간 후 종로구 관내 17개 동으로의 마을자치센터 확대에 맞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마을공동체 사업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마을 지원활동가 및 마을 일꾼 발굴, 마을 공동체 교육 홍보, 공모사업 수행 및 지원 등의 업무도 진행하게 된다.

조계사의 이번 민간위탁 선정은 조계사가 그동안 진행해 온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조계사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한 종로구 각 복지기관과 어린이집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찰 인근에 조계사 청년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는 등 청년 희망사업도 시작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이제 불교는 지역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야 한다. 오는 신도들에 기대기 보다, 찾아가는 스님, 사찰이 되어야 한다"며 "마을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 삶과 밀접한 불교의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공적 영역에서도 공동체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스님도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종단별 연말정산 체계 상이… 확인 필요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소득과세로 인해 올해부터 스님들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 대부분의 종교가 처음 맞이하는 연말정산, 스님과 재가종단 정사들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은 중앙종무기관인 총무원 재무부가 연말정산 업무를 전담한다. 당초 종교인 소득과세로 인한 모든 행정업무를 재무부에서 담당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원하는 스님들은 1월 28일까지 '종교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이메일(soim@buddhism.or.kr)로 접수해야 한다. 이메일 접수가 어려운 스님은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필수서류는 본인공제를 위한 주민등록등본이다. 경로우대(만 70세 이상)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위해서는 각각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납입 내역을, 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납입 증명서를, 연금계좌공제는 연금납입확인서를, 기부금공제는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재무부는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사찰별 2018년 소임비지급명세서를 발송하고 있다. 각 사찰에서는 명세서 내용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재무부로 문의하면 된다. (02)2011-1888

태고종은 중앙이 아닌 개별 스님들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어느 것으로든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태고종은 종교인과세 안내 당시부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공지했다. 따라서 태고종 스님들은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천태종과 진각종은 소득 구간이 대부분 낮고, 타 종단에 비해 인원이 적은 관계로 중앙종무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섭 기자

수료 과정 및 강주

초급반 (기본이론 기초과정)
모집조건 모든 종단 승려
교육내용 기본사물, 기본예불, 불공 및 시식
강주 호산스님
일시 화 목 오후 2시 ~ 5시
교육기간 6개월

중급반 (상주권공 I 기초과정)
모집조건 초급반 이수자
교육내용 시련/대령/관욕, 상단/시식, 작법기초
강주 혜령스님
일시 수 금 오후 2시 ~ 5시
교육기간 6개월

상급반 (상주권공 II 전문과정)
모집조건 중급반 이수자
교육내용 상주권공재의식, 전문과정, 작법 고급과정
강주 혜령스님, 호산스님, 월인스님
일시 화 목 오후 2시 ~ 5시
교육기간 1년 과정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불교의식(범음, 범패) 교육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졸업자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자격 부여

본 원은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재(범음, 범패)를 교육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불교의식의 정수인 영산재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후진 양성에 매진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불교 문화재이자 민족의 빛난 문화유산인 불교전통의식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배우실 기회를 놓치신 스님들께서 많습니다. 본 원은 **종단을 초월하여 승려 양성에 목적을 두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스님들께서는 수희동참으로 만학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모집안내

입학자격
모든 종단 승려

제출서류
입학원서 (본원의 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장

전형일정
2019년 1월 ~ 3월 5일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53(금호동) 법륜사

입학문의
법륜사 종무소 | 062-655-7444 / 010-6650-7444
보존회 사무처장 | 법진스님 010-9606-3981
연구원 교학처장 | 명휴스님 010-7941-0017

(사)광주전통불교 영산재 보존회 부설 연구원